전남대병원 만성적자 '허덕'

부채 1천억 넘어…화순전남대병원은 682억
항생제 처방 많고 제왕절개 전국 평균 2배

전남대병원이 수년째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항생제 처방과 내성이 강한 세균 감염이 지나치게 많아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적자 운영 심각=정부가 30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화순 전남대병원은 지난해 모두 682억원의 부채를 기록해 서울대병원(1천567억원)에 이어 전국 국공립 병원 중 부채 순위 2위를 기록했다. 학동 전남대병원의 부채 382억원을 더하면 모두 1천64억원의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병원은 올해 6월 기준 누적 적자액도 모두 293억원(학동 259억원+화순 34억원)으로 서울대 병원 등에 이어 9위였다. 학동 전남대 병원은 운영적자가 ▲2004년 26억8천만원 ▲2005년 21억7천만원 ▲2006년 49억4천만원 등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화순 전남대병원은 ▲2004년 77억1천만원 ▲2005년 32억6천만원의 적자를 냈으나, 2006년 23억3천만원의 운영수익을 내는 등 경영이 다소 호전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의료수가 인상률이 현실화되지 못한 데다, 재료비·관리비 등 의료비용 증가 폭이 수익보다 높아 만성적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항생제 처방률 서울대 2배=전남대는 지난해 외래 '급성 상기도 감염'(호흡기의 상기도 감염에 따른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42.79%에 달해 서울대 병원 23.03%의 2배에 육박했다. 이처럼 항생제 처방을 오·남용할 경우 치료효과는 없고 내성만 키우게 될 위험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남대병원은 최근 3년간 78명의 환자가 중환자실 등에서 내성이 강한 세균에 감염됐고, 이들 중 67명이 항생제 남용으로 수퍼 박테리아의 일종인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남대 병원의 제왕절개 수술 비율은 지난 2005년 60.5%에 비해 약 5%P 증가한 64.9%에 달했다. 같은 해 전국 평균 비율 37.1%보다 2배 가까운 수치다.

전남대 병원은 주사제 유리 앰플 개봉시 유릿가루의 주사기 내 흔입을 막을 수 있는 주사기인 '필터 니들'(Filter-Needle)의 사용률도 저조했다. 올 상반기 모두 92만9천235개의 주사 앰플을 사용하면서 고작 1천747개(0.2%)의 '필터 니들'을 이용하는데 그쳤다. /이은미기자 emlee@

외지 등산객 10명 중 9명
"무등산 다시 오르고 싶다"

무등산관리사무소 설문

무등산에 오른 외지 등산객 10명 중 9명이 기회가 되면 다시 찾고 싶다고 했다.

광주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증심사지구와 원효사지구를 찾은 외지 단체 탐방객 대표자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0.9%가 다시 찾고 싶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무등산을 탐방한 뒤 85%가 '와볼 만하다거나 기대 이상'이라고 답했고, 15%는 '그저 그렇다'와 '기대보다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무등산을 찾은 이유로 43.7%가 '이름 있는 산이어서'라고 했고 다음으로 ▲호남의 상징(26.9%)▲빼어난 설경(25%) ▲교통편리(4.4%)가 뒤를 이었다.

무등산 등산로와 편의시설에 대해 84.7%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완해야 할 시설로는 ▲등산로 정비(34.9%) ▲의자 등 편의시설(25.9%) ▲공중화장실 정비(18.5%) ▲약수터(20.9%) 등을 들었다.

응답자는 대구와 부산 등 영남권 출신이 38.4%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북(36.9%), 충남·대전(12.8%), 서울·경기 등 수도권(11.9%) 순이었다.

임희진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은 서석대·입석대 등 주상절리대가 천연기념물(제465호)로 지정되면서 많이 알려진데다 교통이 편리하고 빼어난 설경이 있어 외지 탐방객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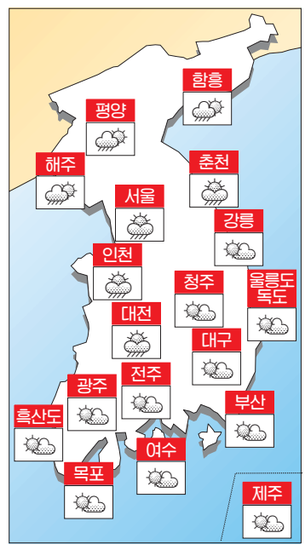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하늘 덮은 구름

맑은 후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10월 31일 (음 9월 21일) ◇전국날씨

광 주	점점 흐려짐	7~18℃
목 포	점점 흐려짐	8~18℃
여 수	점점 흐려짐	10~18℃
완 도	점점 흐려짐	8~17℃
구 례	점점 흐려짐	5~18℃
해 남	점점 흐려짐	5~18℃
장 흥	점점 흐려짐	5~18℃
고 흥	점점 흐려짐	6~19℃
순 천	점점 흐려짐	5~18℃
영 광	점점 흐려짐	6~17℃
진 도	점점 흐려짐	6~18℃
전 주	점점 흐려짐	7~17℃
남 원	점점 흐려짐	5~17℃
흑산도	점점 흐려짐	11~15℃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0.5~1.5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목 포 밀물 05:17 18:13 썰물 10:23 23:20
여 수 밀물 12:40 --:-- 썰물 05:47 18:56

▲해뜸 06:52 ▲해짐 17:40 ▲달뜸 22:12 ▲달짐 12:2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목)	2(금)	3(토)	4(일)	5(월)	6(화)
날 씨						
최저/최고	8/15	4/14	5/16	6/17	8/17	9/18

영호남 장애우 화합 한마당 (사)광주 남구장애인협회(협회장 박정민)와 대구 지체장애인 남구지회(지회장 박영복)가 30일 남구 구동체육관에서 공동 개최한 '제8회 영·호남 화합 한마당 교류대회'.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 400여 명은 이날 휠체어 투호·볼링·줄다리기·윷놀이 등 다양한 게임을 즐기면서 지역 간 화합을 다졌다. 〈인터뷰 20면〉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정창영 연세대 총장 전격 사퇴

부인 편입학 금품수수 의혹

편입학과 관련해 부인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창영(64) 연세대 총장이 30일 총장직을 사퇴했다.

연세대학교 법인은 이날 "정창영 총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이사회는 총장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이사 11명 중 9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당연직 이사인 정 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정 총장은 휴대전화도 받지 않은 채 외부와의 접촉을 일절 피했다. 지난 2004년 4월 9일 제 15대 총장에 임명된 정 총장은 이로써 내년 4월까지인 4년 임기 중 5달 가량을 못채운 채 총장직을 물러나게 됐다.

연세대 법인은 정 총장이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는대로 절차를 거쳐 이를 수리할 계획이다.

정 총장은 부인 최모씨가 작년 11월 김모씨로부터 딸을 연세대 치의학과에 편입학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지난 29일 공개된 뒤 검찰은 곧바로 내사 착수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징계 교수 전국 3위… 국제경쟁력은 처지고

전남대 이래서야…

오늘 교육위 국감

'징계 교수 많고, 시간강사 처우는 약하고, 국제경쟁력은 처지고….'

국회 교육위원회 정문헌(한나라당) 의원은 31일 열리는 전남대학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립대 교수 징계 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대가 전국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교수 징계는 지난 3년간 전국의 국립대 20곳에서 118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전남대가 10건(8%)으로 전북대(23건·19%), 서울대(21건·18%)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다.

전남대는 또 총 개설 과목 수 3천378개 중 절반이 넘는 1천742개(51.5%)가 시간강사 담당 과목으로 조사됐다.

이원복(한나라당) 의원은 문화전문대학원의 과행과 관련, "교과과정을 보면 과목은 많으나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강의계획서의 참고 문헌을 보니 대학원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최신 해외 원서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학생들이 외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현장의 전문가들을 만나 토론할 기회를 얼마나 갖게 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양형일(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전국 4년제 국·공립대학 및 주요 사립대의 대학국제화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대는 전체 예산 2천498억원 중 0.5%인 20억8천만원을 국제교류사업에 반영해 금오공대의 2.2%, 목포대의 2.0%에 비해 국제화를 위한 투자비율이 낮다고 밝혔다. 외국대학과의 교류도 110건으로 서울대(318건), 부산대(142건), 경북대(135건) 등에 비해 적었다.

원어 강의는 올해 1학기 4천123개 학부 강의 중 21개(0.5%)에 불과해 국·공립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외국인 전임교원 수가 전무할 뿐 아니라 복수학위제 역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천정배(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전남대의 최근 3년간 학업중단 학생 현황'을 분석, 자퇴생이 매년 1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퇴생 중 이공계열의 학생이 60% 이상을 차지해 이공계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남대의 자퇴생 440명 중 61.6%인 271명이 이공계였다. /정상필기자 camus@

'10월의 마지막 밤' 향연속으로

광주 가을밤 음악회 등 이벤트 다채

젊은이들 사이에 '10월의 마지막 밤'을 기념하는 '만남'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겨냥한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린다.

광주시 서구청은 31일 서구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10월의 마지막 밤 행복 콘서트'를 연다. 오후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광주시립국극단의 사물놀이·서구여성합창단·가수 한혜진 등의 공연이 진행된다. 감미로운 색소폰 연주에 맞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 시월의 마지막 밤을…' 이라는 노랫말로 유명한 가수 이용의 '잊혀진 계절'을 함께 부르는 코너도 마련된다.

지하철 예술무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예술가 30여 명은 이날 오후 7시30분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지하철이 전하는 시민초청 가을밤 향연'이라는 음악회를 갖는다. 도시철도공사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사이버문학인협회'의 시낭송과 'J-Magic'의 마술쇼 등의 공연이 이어진다.

광주극장은 이국적인 영상과 음악으로 호평을 받은 아일랜드의 음악영화 '원스'(ONCE)를 특별개봉한다. 다른 영화와는 달리 밤 9시에 첫 상영을 하며, 추첨을 통해 관객들에게 그룹 '두 번째 달'의 공연 티켓을 증정한다.

'할로윈 데이'이기도 한 10월 마지막 밤, 온라인 게임 '카트라이더'는 '흐물흐물 유령''유령 풍선' 등의 신규 아이템을 선보이고, 추첨을 해 호박모양의 풍선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염주 실내 수영장 다음달 다시 개장

전국체전으로 휴장한 염주 실내수영장이 8개월 만인 다음달 1일 일반인에게 다시 문을 연다. 염주 실내수영장은 이날부터 3일간 무료 개방 행사를 갖는다.

광주도시공사는 앞서 지난 4월부터 수영장 문을 닫고 26억원을 들여 편의시설·조명 등을 대대적인 개·보수한 뒤, 이곳에서 제88회 전국체전 수영대회를 치르게 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